

'99년 국제 유가 전망



권 오 복

〈 석유개발공사 석유정보처 과장 〉

1. '98년 석유시장 개관

(1) 금년 석유시장의 특징

금년 국제 원유가격은 전년에 비해 무려 30% 이상 하락했다.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배럴당 18달러(Dubai 기준) 수준을 보였던 국제유가는 올해에는 배럴당 12달러수준까지 폭락. 지난 '88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상으로 볼 때 더할 나위없는 낭보요, 크게 한 짐을 던 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96~'97년의 이례적 유가 급등 현상에 이은 올해의 유가 폭락 사태를 지켜본 입장이라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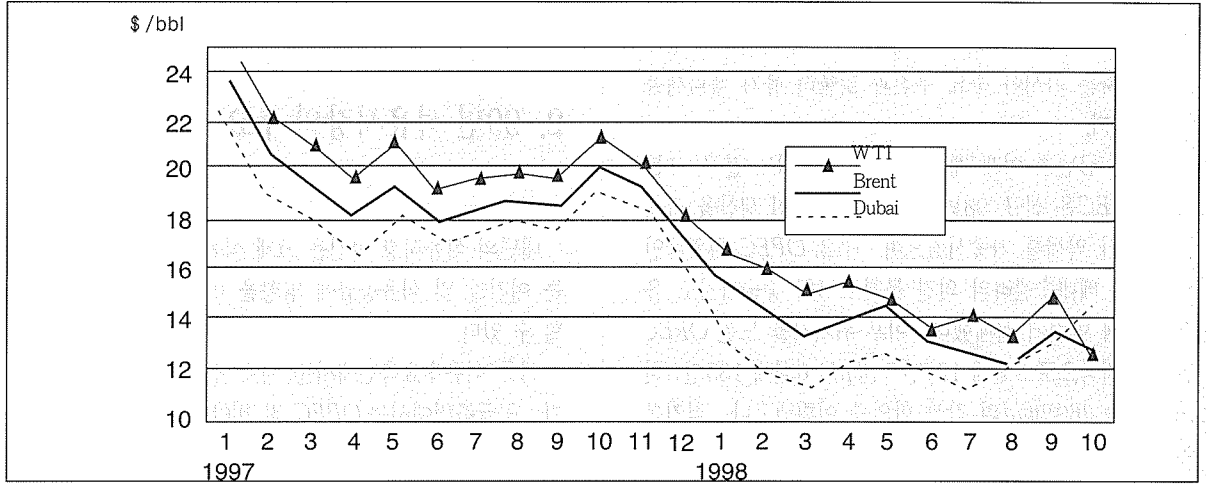
특히, 금년 석유시장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닥친 아시아 경제위기의 암운이 고스란히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과거 '86년 및 '88년의 유가 폭락 사태시에는 산유국

들의 원유 증산 경쟁 등 공급측면에서의 문제가 두드러졌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미중유의 아시아 경제위기때 따른 석유수요 부진이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즉, '97년 11월 아시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던 시점에서 OPEC 등 산유국들은 금년에도 과거와 같이 아시아지역의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잘못 판단, 올해 OPEC 생산상한을 약 10%나 늘리기로 결정하는 遇를 범했다.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때 따른 석유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격히 곤두박질치는 국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에도 실패, 유가 폭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산유국들의 양태야말로 아시아 경제위기가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과연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까지나 석유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석유시장은 '아시아 波高'라는 직격탄을 맞은 한 해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bl)

	'96년 평균	'97년 평균(A)	'97.10	12월	'98.1	3월	5월	7월	9월	10월	'98년 평균*(B)	증감 (B-A)
Dubai	18.15	18.19	19.16	16.20	13.38	11.43	12.76	12.11	13.17	12.70	12.60	-5.59
Brent	19.65	19.33	20.14	17.39	15.51	13.49	14.67	12.77	13.62	12.96	13.80	-5.53
WTI	21.01	20.61	21.24	18.25	16.64	15.03	14.88	14.16	14.97	14.30	15.00	-5.61

*는 예상치

(2) 유가 폭락의 주요 원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경제위기와 온난한 날씨 등에 따른 석유수요 부진 및 산유국들의 부적절한 생산 증대 정책에 따른 공급 과잉이 유가 폭락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한 공급 과잉 정도 및 제때 소진되지 못한 석유재고의 적체로 유가는 약세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첫째로, 석유수요 측면을 보자.

'97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아시아 경제위기가 금년 들어서 더욱 악화, 통상 매년 80만b/d씩 증가하던 아시아 지역의 총석유수요는 금년중 전년비 50만b/d나 감소('97년 1,945만b/d → '98년 1,895만b/d)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수요 증가 규모를 감안시 국제 석유

시장에서 약 120만b/d 정도나 수요가 준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석유수요 감소가 두드러져 전년에 비해 각각 40만b/d, 50만b/d, 70만b/d의 수요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97년말 '98년초의 동절기 기온마저 유례 없이 따뜻한 편이어서 석유수요 부진을 가중시켰다. 엘니뇨 현상의 강성으로 주요 석유소비지의 기온이 온난, 특히 금년 상반기중 석유재고 적체 수준이 300만b/d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하반기에도 예년에 비해 높은 재고수준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유가 약세에 영향을 끼쳤다.

둘째로, 석유공급측면을 보자.

석유공급측면에서는 OPEC의 그릇된 시장상황 판단 및 유가 폭락에 대한 대처 미흡, 그리고 이라크 석유수출량 증대가 맞물려 유가 폭락에 일조했다.

즉, OPEC은 '97년 12월 1일 '98년 상반기 생산상한을 기존 2,503만3천b/d → 2,750만b/d로 약 10%나 증대, 유가 폭락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아시아 수요 부진과 맞물려 유가 폭락세를 증폭시켰다.

게다가 금년초 이래 계속된 유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1분기중 OPEC은 신규 '98년 생산상한에 맞춰 생산을 크게 늘려 유가 약세를 가중시켰으며, 주요 OPEC 회원국인 사우디와 베네수엘라의 의견 분열로 3월 중순까지도 유가 부양책 마련에 실패했다. 이후 위기감을 느낀 OPEC이 궁여지책으로 3월에 124만5천b/d, 6월에 135만5천b/d 등 총 260만b/d의 감산 합의를 이뤄냈으나, 적기를 놓친데다가 감산규모도 작았고, 감산 실적도 60~70%에 불과, 유가 부양에는 실패했다.

OPEC의 생산정책 동향

(단위 : 만b/d)

	시기	내역	비고
'98상한증대	'97.12.1	2,503.3→2,750	약 10% 증대
증산 지속	'98.2월	2,698.7 생산	감산기준 산유량
1차감산합의	'98.3.30	124.5 감산	2월 산유량 대비
2차감산합의	'98.6.24	135.5 감산	총260만b/d 감산
생산실적	'98.5월	총회원국	합의의 73%
		이라크 제외시	(이라크는 합의 제외)
		2,837	2,608
생산실적	'98.7월	2,772	합의의 63%
생산실적	'98.9월	2,702	합의의 95%

8월부터는 90%를 상회(이라크 제외시) 하는 감산 실적을 보여오고 있으나, 합의 제외 회원국인 이라크의 증산과 수요 부진 등으로 유가 부양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라크는 OPEC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UN의 인도적 석유수출 프로그램 관계상 OPEC 감산 합의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석유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산을 계속(금년 1월 120만b/d → 9월 250만b/d) 해왔다.

그 결과 '97년 하반기만 해도 70만b/d를 수출했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130만b/d, 하반기에는 180만b/d로 수출량을 크게 늘렸으며, 이에 따라 OPEC의 감산효과

를 크게 상쇄시켜왔던 것이다.

2. '99년 석유시장의 주요 여건 변화 전망

내년의 석유시장 여건은 크게 석유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 및 석유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로 대별할 수 있다.

이중 석유수요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성장 및 기온문제가, 공급측면에서는 OPEC 및 비OPEC의 생산 동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첫째로,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여건과 석유수요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아시아를 비롯, 약화일로로 러시아·남미 경제 상황으로 인해 내년 세계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불확실하며, 심심찮게 경제공황의 발생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중 세계 경제공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은 체쳐두고 여타 경제 분석기관들의 전망을 감안할 경우, 아시아 경제위기의 진정세 등을 필두로 세계 경제 여건 또한 악화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IMF 등도 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성장률이 '98년 -2.9% → '99년 0.7%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등 아시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 세계경제는 최소한 금년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내년중 세계경제,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시 '99년 석유수요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분석기관들 또한 내년 아시아 석유수요는 금년보다 30~40만b/d 가량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며, 이러한 아시아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 세계 전체 석유수요 또한 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내년의 전반적인 경제여건 등을 감안시 내년 세계 석유수요는 근년의 높은 증가율(약 2.5%, 180만b/d)에는 못미치나 '98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1.6%, 120만b/d 내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반구 기온 또한 석유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98~'99년 동절기중 주요 석유소비지인 북반구지역에는 라니냐 현상에 따른 혹한 도래가 예보되고 있는데, 통상 혹한은 수요 증가를 유발한다.

이와 관련, 미국 등 각국의 기상당국은 '98년 후반부터 라니냐가 발달하기 시작, '99년 1~5월 사이에 피크에 달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 예보대로 내년 초부터 라니냐현상이 북반구 주요 석유소비지를 강타할 경우 내년 상반기는 물론 전체 석유수급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석유공급에 영향을 미칠 여건들을 보자.

주로, OPEC 및 비OPEC의 생산동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중 OPEC 생산의 경우 현재의 낮은 유가수준으로 미루어보아 대체적으로 내년까지 현 생산억제 정책이 어느 정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증산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형상인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OPEC의 생산동향과는 달리 이라크 수출이 어떠한 추이를 보일 것인가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즉, 금년과 같이 이라크가 계속 증산을 할 경우 OPEC의 감산효과가 크게 둔화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열악한 이라크 경제여건상 현재보다 많은 생산을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원유생산을 늘리는 데에는 막대한 시설과 자금이 소요되나, 현재 이라크의 석유산업 관련 시설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데다가 UN이 허용한 석유산업관련 부품 및 장비의 수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중 이라크는 금년 하반기 평균 수출수준(180만 b/d) 이내에서 수출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비OPEC의 생산의 경우 과거와 같은 큰 폭(최근 100만b/d 이상 증가)의 생산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금년중의 계속된 저유가 상황으로 비교적 원유 생산단가가 높은 북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각종 석유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들이 지연·중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때문이다.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 \$/bbl)

	'97년 평균	1998년					1999년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 요	OECD수요	41.9	47.1	45.0	46.6	48.6	46.8	48.0	45.9	47.0	49.0	47.5
	비OECD	31.9	27.8	27.4	27.3	28.3	27.7	28.6	28.0	27.8	28.5	28.2
	계	73.8	74.9	72.4	73.9	76.9	74.5	76.6	73.9	74.8	77.5	75.7
공 급	비OPEC공급	44.4	45.2	44.6	44.1	45.3	44.8	45.8	45.4	45.5	46.3	45.8
	OPEC원유	27.2	28.5	28.2	27.2	27.2	27.8	27.3	27.5	27.7	27.8	27.6
	OPEC NGL	2.8	2.8	2.8	2.9	3.0	2.9	3.0	3.1	3.1	3.1	3.1
	계	74.4	76.5	75.7	74.2	75.5	75.5	76.1	76.0	76.3	77.2	76.4
재고(수급균형)	+0.6	+1.6	+3.4	+0.3	-1.4	+1.0	+0.5	+2.1	+1.5	-0.3	+0.7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 참조

3. '99년 국제 석유수급 전망

앞서 언급한 내년 석유시장여건중 아시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라니냐 현상에 따른 폭한이 도래할 것으로 보았을 때 석유수요는 금년보다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과거의 활발한 증가추세(180만b/d 내외)에는 미치지 못하나, 금년비 약 120만b/d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석유공급의 경우는 OPEC 등의 생산억제정책이 어느정도 계속되고, 비OPEC의 공급 또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가정시 금년비 90만b/d 내외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 회복 및 공급 증가세 둔화로 인해 내년에는 금년의 석유수급상황(100만b/d 공급과잉)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석유수요 7,570만b/d, 석유공급 7,640만b/d로 공급과잉 정도는 70만b/d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99년 국제 원유가 전망

'99년 시장변수중 특히 ①향후 아시아 경제위기 추이 ②OPEC의 감산 준수 정도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아시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OPEC의 생산억제 정책이 지속될 것을 상정시 내년 유가는 금년비 \$1/bbl 내외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기준케이스). 이외에도 이 기준케이스에는 이라크 석유수출은 160만b/d 내외에서 계속되되 부분적인 수출 차질 가능성도 있으며, 라니냐 현상에 따른 寒冬이 도래할 것 또한 상정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 및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OPEC가 제대로 감산 합의를 지키지 못하며, 겨울 기온 또한 평년수준과 유사한 경우인 <저유가케이스> 상황으로 진행될 경우 유가는 기준케이스보다 \$3/bbl 하락할 전망이다.

끝으로, 아시아 경제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OPEC도 추가 감산 등을 단행할 경우인 <고유가케이스>의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에는 기준케이스보다 \$1/bbl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외국의 주요 분석기관들 또한 대체적으로 내년 유가가 금년보다 \$1/bbl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8~99년 국제 원유가 전망(기준케이스)

유종	1997 평균	1998 전망	1999 전망	증 감	
				'99~'98년	'97~'98년
Dubai	18.19	12.60	13.50	0.90	-5.59
Brent	19.33	13.80	14.80	1.00	-5.53
WTI	20.61	15.00	16.00	1.00	-5.61

일례로 미국의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ERA)는 OPEC이 감산합의를 잘 지킬 경우 내년 Brent 유가는 \$15.3/bbl 수준으로 금년비 약 \$1.30/bbl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연구센터(CGES)는 금년 동절기 기온이 평년 수준을 보일 경우 내년 Brent 유가가 금년비 소폭(\$0.20/bbl)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혹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2/bbl 이상 상승(\$16/bbl)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들이 금년보다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는 예상하고는 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FACTS사 등 일부 기관은 아시아 경제위기 심화를 가정, 금년비 소폭(\$0.30/bbl 내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